

강성열 교수의 성경을 여는 열쇠, 창세기

4강 에덴 동산 이야기 : 일과 삶

1. 처음 사람의 생존 환경 (2:8-17)

(1) 에덴 동산 (8-14절)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후에 그가 머물며 살 수 있는 곳을 만들어주기로 작정하시고 동쪽에 있는 에덴에 아름다운 동산을 일구셨다. 그 동산에 자기가 지은 사람을 두신 하나님은 그 땅(‘아다마’)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각종 나무들이 자라게 하셨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자라던 그 많은 나무들 중에는 생명나무와 선악(善惡)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다. 이 두 나무는 에덴 동산의 한가운데에 있었다(8-9절).

그리고 이 에덴 동산에는 동산 자체를 적심과 동시에 동산에서 흘러나와 사방으로 흐르는 네 개의 강물이 있었다(10-14절). 비손강과 기혼강, 히데겔강, 유프라테스강 등이 이에 속했다. 첫 번째 강인 비손(Pishon)은 금(金)의 생산지인 하빌라(Havilah) 지역을 휘감아 흐르고 있었으며, 두 번째 강인 기혼(Gihon)은 구스(Cush) 땅을 휘감아 흐르고 있었다. 그런데 이 두 강은 그 정확한 위치나 이름이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반면에 세 번째 강과 네 번째 강은 그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다. 세 번째 강인 히데겔(Hiddekel)은 앗수르 동쪽으로 흐르고 있는 것으로 지금의 티그리스 강(Tigris)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네 번째 강인 유프라데(히브리어로는 ‘프라트’)는 티그리스 강보다는 약간 밑쪽에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관통하여 흐르는 유프라테스 강(Euphrates)을 말한다.

이러한 강들의 이름에 의한다면, 에덴 동산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북쪽 어느 지역에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에덴 동산의 실제 위치가 어디인가를 찾아내는 데에 있지 않다. 그러한 노력은 사실상 성공을 거두기 어렵고 또 부질없는 일이다. 오히려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온 강들이 당시 세계에서 가장 비옥하다고 알려진 땅, 곧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적시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에덴 동산이 그야말로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을 갖춘 지상의 낙원임을 암시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지상의 낙원이 처음 사람의 삶의 터전으로 주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기 전의 땅이 본래는 물도 없고 땅을 경작할 사람도 없고 나무나 풀도 없는 곳이었다는 사실(5절)과 큰 대조를 이룬다.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풀 한 포기 나지 않는 메마른 땅(‘아다마’)을 나무와 물이 풍부한 땅(‘아다마’; 9절), 곧 일종의 오아시스로 만드셨음을 뜻한다. 달리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황무지와도 같이 메마른 삶의 터전을 보호해 주시고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는 분임을 보여 주는 것이다. 히브리어로 ‘에덴’이라는 말 자체가 “기쁨” 또는 “즐거움”을 뜻하는 낱말임이 이를 뒷받침한다. 주전 3세기경에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은 이 낱말을 ‘파라데이소스’로 옮겼는데, 이 표현은 오늘날까지도 낙원(Paradise)을 뜻하는 말로 널리 쓰이고 있다. 성경 자체도 에덴을 낙원과 동일시하고 있다(사 51:3; 겔 28:13; 31:9).

(2) 일하도록 지음 받은 인간 (15절)

처음 사람에게 이처럼 비옥한 땅 에덴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은 그가 아무 할 일도 없이 무위도식(無爲徒食)하게 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운 일거리를 주셨는데 그것을 바로 자신에게 선물로 주어진 땅을 잘 관리하는 일이었다. 15절이 이 점을 잘 보여 준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아바드’) 지키게(‘사마르’) 하시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15절의 후반부이다. 개역성경은 히브리어 본문을 ‘다스리며 지키게’라고 잘못 번역했으나, 개역 개정판이 이러한 잘못을 수정하여 올바르게 번역하였다. 첫 낱말의 동사 어근인 ‘아바드’는 “경작하다, 일구다”(till, cultivate)의 뜻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 낱말의 동사 어근인 ‘사마르’는 “지키다, 파수하다”(keep, watch)의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본문 이해에서 분명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이 처음부터 일하도록 만들어졌다는 사실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일(노동)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것이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하는 한없이 즐거운 것이다(사 65:21-23). 그것은 땅(‘아다마’)으로부터 만들어진 인간의 본질에 적합한 것이요, 따라서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 일에는 어떠한 제약도, 강제도 따르지 않는다. 그저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기쁨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이 낙원에서의 노동인 것이다. 이 점에서 본다면 낙원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그저 먹고 마시면서 놀기만 하는 유흥장이 아니라 함께 가꾸며 지키며 관리해야 할 삶의 일터임이 분명해진다.

이처럼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노동이 부정적이고 피동적인 것으로 바뀌는 것은 인간의 범죄와 긴밀한 관계가 있다.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는 잘못을 범한 후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속한 노동의 개념을 송두리째 뒤집어엎는 것이었다. 이제 인간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노동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땀을 흘리고 수고를 거듭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상을 가꾸고 지켜야 할 신성한 노동이 이제는 생존을 위한 세속적인 투쟁으로 바뀌어버린 셈이다(3:17-19).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되찾아야 하는 우리로서는 그중의 하나인 일(노동)의 본래적인 의미를 되찾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거룩한 과업임을 알고 항상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일에 종사해야 한다. 단순히 벌어 먹고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자신의 일에 종사해야 한다는 말이다(마 6:33-34).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자신의 노동을 소중히 여겨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노동이 소중함도 알아야 한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는 일과 똑같이 다른 사람들의 노동 역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신성한 것(선물)임을 알아야 한다는 말이다. 이 점에 비추어 본다면, 인간의 노동을 많이 배우고 덜 배우고의 차이에 따라, 또는 남자와 여자의 차이에 따라 차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또한 노동은 비천한 사람이나 하는 것이라는 식으로 사람들을 호도하여 노동의 신성함을 저버리도록 요구하는 잘못된 생각은 고쳐져야 마땅하다. “도적질하지 말라”는 십계명의 제8계명은 사실 노동의 신성함을 일깨우는 매우 중요한 계명이다. 이 계명은 자기 손으로 땀 흘려 수고한 것으로 살라는 것에 다름 아니다. 다른 사람들은 피땀 흘려 수고하는데 자신은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서도 많은 수입을 올린다거나, 한술 더 떠서 다른 사람이 피땀 흘려 수고한 것을 고스란히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태도야말로 하나님께 가증스러운 것이 아니겠는가! 따라서 일함이 없는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부합하지 못한 자요, 인간으로서의 자격을 제대로 누리지 못할 자임을 바로 알아야 할 것이다. 땀 흘림이 없는 인간 실존은 참으로 무의미한 것이다(살후 3:10).

[보충: 불한당(不汗黨)은 자신은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서 남이 얻은 땀의 수고(열매)를 갈취하는 자를 가리킨다. 사전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어원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의 교회 안에도 불한당이 많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순종하고 봉사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따르지 않는다면, 수고와 땀의 봉사가 없다면,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그것이 곧 불한당 크리스천의 모습인 것이다.]

(3) 선악과를 금하신 하나님 (16-17절)

하나님은 처음 인간에게 에덴 동산을 선물로 주시고 그에게 그 동산의 땅을 일구고 지키는 일을 맡기신 다음에 그에게 먹을 양식을 주셨다. 그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던 것이다(창 1:29-30 참조). 그러나 거기에는 조건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바로 동산 한가운데에 있는 나무, 곧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도대체 무슨 나무일까를 아는 데에 있지 않다. 참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아는 데에 있다. 그리고 그것이 금지 명령의 형태를 가지고서 나타난다는 것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나님은 사람을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시고 그에게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창 1:26-28). 이른바 왕적인 통치권을 주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무제한의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다. 사람은 비록 다른 피조물들에 대해 왕적인 통치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시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았다.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었기에 도무지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맞먹을 수 없는 존재였던 것이다. 이 점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따라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사람에게 무제한의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 주는 것이요,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이 넘어가서는 안 될 한계를 상징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사람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피조물임을 암시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으면 안 된다고 명령하신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를 갖는다. 즉 명령하고 복종하는 관계, 이것이야말로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람 사이에 있어야 할 바람직한 관계라는 말이다. 이것은 결국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명령하는 분이시요, 피조물인 사람은 그 명령에 복종하는 존재임을 뜻한다.

이 점에서 본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결코 사람의 자유를 속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어야 할 질서와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피조물인 사람이 지켜야 할 삶의 질서인 동시에 참된 행복의 길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리는 표지판과도 같은 것이다. 따라서 만일에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잘 지킨다면 그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약속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자신의 자유를 고집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할 경우에는 정반대의 결과가 생겨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러한 행동은 결국 창조주이신 하나님에게 맞서는 것일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피조물이기를 중단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뱀의 유혹(3:4-5)이 이 점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는 것이 이처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진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으면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는 너무

도 당연한 것이다. 그것은 바로 죽음인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스스로가 주인 노릇을 하려는 자에게 주어질 형벌은 본래 그에게 선물로 주었던 생명을 다시 회수하는 것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주신 직후에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경고의 말씀을 주셨다(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자는 이러한 죽음의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나침반 바이블
BIBLE